**성지 이집트 (룩소, 시나이) 이스라엘, 요르단 (페트라) 12박 13일 순례후기**

**탈출기로 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따르는 길**

김정숙이사벨라, 체리힐 한인천주교회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곳을 여행을 해 보았지만, 성지순례는 지난  2006년 월드 유스데이에  딸 크리스티나와  아들 알렉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성당 유스그룹 학생들 14명을 데리고  샤프론으로 참석한 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성지 순례를 떠나기 전 우리 부부는 갈까 말까 망설임 속 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4년전 파킨슨 진단을 받은 남편의 병 진행이 가속화 되면서 이번 순례 기회를 놓치면 힘들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또 올 봄에 본당 신부님과 함께 루가복음서를 공부했는데,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아  꼭 가 보고 싶었고, 성서에서 본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껴보고 싶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의 지병으로 인해  행동하는데 민첩하지 못해다른 순례단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다. 본당 신부님이 순례를 인솔하고, 본당 교우들이 많이 동행해서 나도 용기를 내어 가기로 결정했다.

순례하는동안 남편은 많이 힘들어 했다. 시차가 있어 약 복용하는 시간과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약  흡수가 저하되면서 효능이  많이 떨어져서, 2배 정도의 약물을 복용하다 보니 부작용 역시 많았다. 더우기 아픈 몸으로  비좁은 공간에서 비행하는 동안, 그리고 장 시간 버스로 이동하는 불편함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강행군으로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고생은 했지만,  뒤돌아보니 꿈같은 시간이었고, 은총의 시간 이었다. 순례하는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필요할 때 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신 순례단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계획하시고 안전한 순례가 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우주관광 김내순요한 사장님과 매 순간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님께 무한 감사드린다.

**2018년 11월 12일(월)  Day 1**

성지 순례단 31명 중 필라델피아 팀 17명이 필라 인터네셔널 공항에서 만나 가볍게 인사 나누고 출국 수속 후 독일 Frankfurt 에 도착( 목적지인 카이로 비행기에 탑승까지 5 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어 이집트에서 식사하면서 마실 와인과 치즈, 간식거리를 쇼핑했다).카이로 항공환승 후..

**11월 13일(화)  Day 2**

오후 6시 35분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여  현지 가이드가 한국 음식점으로 인도 했다.  장시간 비행과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에 지친 우리들에게  한국음식은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된장국과 생선구이, 김치,  전 등 익숙한 음식들이다 .  맛있게 먹었다. 석식 후 순례 첫 미사를 드리려 성 조지 성당으로 이동했다.  이번 성지 순례 중 드리는 모든 미사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봉헌하기로 했다.  미사 후 호텔로 이동(Radisson Blue Hotel) 투숙하면서 휴식하려는데, 현지인들이 새벽 3시까지 파티를 하는지 먹고 놀고 춤추고 노래한다. 이집트인들은 흥이 많은 민족인가보다.  노래소리와 종류 별 악기소리가   내 귓 전에서 떠나질 않는다.

**11월 14일(수) 룩소 Day 3**

6시 기상  후 호텔에서 조식하고 다시 공항으로 이동해서 룩소로 항발했다. 비행기로 약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정수인 룩소 지역을 투어했다. 역시 이집트는 문화의 발상지임을 실감하게 하였다.

왕가의 계곡

버스를 타고 얼마동안 달리다 보니 수 많은 계곡이 보이는데 무수히 많은 구멍을 볼 수 있었다.얼핏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계곡처럼 보이지만 계곡에 구멍을 파서 묘실을 만든다음 장례가끝나면 봉인해서 위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유명한 왕가의 묘실 몇군데 들렀는데 수 천년이 지난 오늘 날 까지도 벽화나 상형문자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세련된 색채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무척 인상적이다.

하셉투스(가장 고귀한 숙녀라는 뜻 ) 장제전(북쪽의 수도원)

안쪽 계곡에 자리잡혀 레일을 타고 내려서도 한참동안 걸어들어갔다. 이집트 최초의 여자 파라오 하셉투스 여왕이 지은 자신의 신전이라고 한다. 다른 신전에 비해 여성 스럽다. 한 때 테러범들이 이 하셉투스 장제전의 절벽을 점령하여  관광객들을 죽인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순례자들과 단체 사진 찰칵.

멤놈의 거상

장제전을 지키는 입구에 세워진 석상이나 현재는 신전이 모두 사라져 이 두 거상만 남았다고 한다. 하나는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다른하나는 여러개의 돌로 만들어 졌다고 한다.

카르낙신전

현존하는 신전가운데 최대규모 라고 한다.  10개의 탑문,람세스1세로부터 3대에 걸처 건설된 대열주실, 투트모스1세와 그의 딸로 여왕이된 하트세프스트가 세운 오벨리스크,투트모세3세신전 ,람세스 3세 신전으로 구성되었다. 거대한 기둥에 파라오를 상징하는 상형문자가 새겨졌고 정교함에 감탄했다. 대부분의 석상들이 많이 손상되었다.

룩소신전

고대 이집트 신전에서 만나는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만난 이 모스크의 이름은 ‘아부 엘 학가그가고대 이집트의 아멘신과 그의부인 무트신과 아들 콘수 신을 위하여 만들어진 신전이며 이집트 신전 중 가장 아름다운 신전으로 꼽힌다. 카르나크 대 신전과 뗄수 없는 관게로 두 신전은 대추야자나무 서 있는 길 사이에 양 옆으로 양의 머리를 한 스핑크스가  2 킬로미터의 도로로 연결 되어 있다.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좌상 한쌍과 외롭게 남은 한개의 오벨리스크가 존재 한다.

나일강에서 돛단배 타고 일몰을 즐기다

투어하는 낮 시간은  햇볕이 뜨겁고, 건조하여 말로만 듣던 사막 기후를 실감했다. 그래서 인지여기저기에 머플러를 파는 상인들을 볼 수 있었다. 값싸고 천이 좋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  우리 순례단들도 선물용으로 많이 준비했다. 투어를 마친 후 요한 사장님께서 일정에 없는 깜짝 이벤트를 만들어 주셨다. 나일강에서 돛단배를 타고 일몰을 보는 것 이다.현지인들과 춤추고 노래하며 일몰을 보는 것은 환상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추억에 남을 것 같다. 석식을 위해펠리스 호텔로 이동했다. 나일강을 보면서 순례 후 처음 먹는 중국 음식이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일강 크루즈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석식 후  항공으로 카이로 귀환,  호텔 투숙.

**11월 15일 (목) Day 4**

7시 기상, 호텔 조식 후 올드 카이로 ‘성가정 피난성당’ 방문

성가정이 전승에 의하면  헤로데 임금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오면서 바빌론 성채가 있는 올드 카이로에 3주간 머물렀던 곳에 ‘성가정 피난 성당’이 지어졌다고 한다. 오늘 날 성가정 피난 성당은 ‘아부세르가’ 라고 부르고  마리아,요셉 아기 예수가 머물렀다고 하는 지하 경당이 있다. 성당의 특징은 기둥과 기둥머리는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제대는 ‘이콘 칸막이 서있다. 양쪽 벽에는 다양한 성인들의 이콘들로 아부 세르가 성당의 벽들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모세기념(벤 에즈라) 유대회당 방문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곳 이라고도하며 모세가 광야로 나갈 때 기도한 곳 이라 하여 “모세기념 교회”라 불리지만 지금은 유대인 회당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집트 국립 고고학 박물관 방문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고고학 박물관을 찾아 보았다.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층에서 소지품 검사를 거쳐 내부로 들어서면서 이집트 왕조의 연대에 따라 전시됐고 2층은 투탕카멘 왕묘에서 출토된 귀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전시 돼 있다.  대부분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로 건축물의 일부 부조, 벽화, 공예품들이다. 유물 중에는 투탕카멘왕의 황금 마스크, 옥좌, 침대, 목걸이,장신구들의 등이 눈길을 끌었다. 2층 한쪽 끝으로 위대했던 파라오들의 미라11구를 안치한 특별 전시실이 있다. 그중 가장인기 있는 람세스2세와 관련된 정교하게 조각된 벽화도 있다.

기자 지역의 피라밋과 스핑크스 투어

이집트 카이로를 찾는 여행자들이 보게되는 7대 불가사의 하나인 기자 지역 피라미드의 웅장한 광경은 수 천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스핑크스가 여행객을 맞이해주고 있는데, 카프레왕 피라미드를 지키면서 앉아있다. 인간의 힘은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껴본다. 이런 형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희생 되었을까. 우리 순례팀은 피라밋 앞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낙타에 올라 타 보기도 하였다. 투어 후  호텔로 이동  석식 후 휴식.

**11월16일(금)  Day 5**

마라의 샘( Well of Marah)

6시 기상, 호텔 조식 후 홍해 주변 광야를 따라 버스로 이동하면서 수에즈 운하로 통상하는 선박들이 볼 수 있었다. 중간에 멈춰 모세의 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마라의 샘” ( Well of Marah) 에 도착,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오아시스로 수에즈 터널을 지나 홍해를 따라 해변 가까운 곳에 대추야자 나무가 무성한 첫번째 오아시스이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한다오 하고 부르짖으며 불평하였을 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 우물 옆에는 베두인 노점상들이 줄지어 기념품 판매를 하고있는데 특이한 점은 한결같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갈 시간에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순례팀은  모세의 우물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했다.

다음 쉼터는 왕이 즐겨 목욕했다는  해변온천에 들렸다. 동굴에서 천연 사우나하고, 김이 모락모락나는 온천물에 발 담그고 홍해바다도 거닐며 사진촬영도 했다. 장소를 이동해서 점심은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준비한 도시락으로 휴게소에 들려서 먹었다. 시나이 산에도착하여 산장 호텔에서 짐을 내려 놓고 식당 쪽으로  준비된 장소에서 두번째 미사를 봉헌했다. 이 산장에서의 기억은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따뜻한 물도 안나오고, 히터도 안 나오고…이번 순례 중 제일 고생한 곳이다.  옷 입은채로 침대에 누어서 2시간 휴식하고 새벽1시반에 온 몸을 무장하여 시나이 산 등반  집결 장소로 이동했다. 남편은 등반하지 못 하는 팀들과 조인하고, 등반 후,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11월 17일(토) 시나이 산 등정 (MT. SINAI ) (ST. Catherine Monastery) Day 6**

새벽 1시30분에 시나이 산을 향해 버스로 이동,  산 입구에서 검색 통과 할 때 까지 대략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양쪽 옆으로 상인들이 줄지어 물건들을 판매한다. 준비물 중 챙기지 못했던 장갑을 여기서 샀다.  올라 갈때는 낙타를 타고 가자는 신부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낙타를 탓다. 아마도 평생 잊지 못 할 추억이 될 것 같다.  밤하늘에 쏱아져 내리는 수 많은 별들을 보았다, 손만 들어 올리면 잡힐 듯한 별들, 거기에서 찬란한 천국을 보았다. 그 별들을 보면서 “저별은 나의 별 “ 저별은 너의 별” 을 부르며 얼마 간 이동했는데, 어느덧 낙타 정류장에 도착했다. 간이 휴게소에 앉아 뜨거운 물에 컵 라면을 하나 먹고 다른 일행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린 후, 다시 시나이 산 700여 계단을 올라 정상에 올라 갔다. 여기서 모세가 하느님으로 부터 십계명 증거판을 받았던 장소라고 하는데, 특별히 기념한  “모세 기념교회” 가있다.  시나이 산에 붉게 떠오르는 일출은 온 대지를 빨갛게 불태우는 듯 하다.  다시한번 자연의 신비를 느낀다. 일출을 본 후 다시 휴게소로 내려와 12명의 순례단과 함께 시나이 산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덴버팀의 멤버 MR. & MRS. OH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며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후 산에서 내려오면서 모세 아저씨를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잘 닦여진 길도 올라가고 내려오기  힘들었는데, 그 옛날 험난하고 드 높은 길을 어떻게 올라갔을까 아마도 주님께 애원하는 간절함이 없었으면 이루질 못 했을 것이다.  내려오는 길에  시나이 산 초입에 있는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들렸다. 등정하지 못한 다른 일행들과 합류했다. 이 수도원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수도원이라는데, 수많은 침략과 전쟁에도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신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곳으로 알려진 떨기나무도 보고, 모세가 아내를 만난 장소라고 한다. 이곳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우물이 있는데 이우물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도서관에는 목판으로 만들어진 이콘이 보존되어 있는데,  종교적 가치를 넘어 예술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다고 한다. 시나이 산 등정 후바란광야 , 홍해를 따라  누에바를 경유, 한국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었다. 아 ~얼마 만에  먹어보는 내 나라 음식인가 .. 꿀맛이다. 점심 잘 먹고  타바 국경을 통해 이스라엘로 입국하는데 짐 찾고 들고 다니느게 너무 힘들다. 이런 절차만 없으면 여행하기 훨 쉬울텐데. 우리 일행은  무사히 이스라엘에 입국하여 예리고에 도착했다 오아시스 호텔에 투숙했다. 24시간동안 씻지 못하고 강행군 했는데, 오늘은  편안하게 씻고 잠도 자고 휴식하자.

**11월 18일(일)  Day 7**

세례터(Bethany)

호텔 조식 후 예수님 세례터인 ‘베다니 (Bethany)’ 에 도착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요르단 강에 도착한 우리는 물 속에 몸을 담구지는 못했지만 손을 담구는 것으로 만족했다. 아직도 이곳에서 많은 순례객들은 예수님 시절에 입던 비슷한 옷을 입고 세례를 재현 한다고 한다.

꿈란(Qumran)

아랍의 한 양치기가 잃은 동물을 찾기위해 돌맹이를 동굴로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오래된 항아리에 보관되었던 양피지 두루마기를 발견했다고 한다. 꿈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의 주인은 에세네파에 속한 쿰란 공동체였다고 하는데, 에세네파는 사두가이나 바리세이파 보다 더 완고 하였고 보수적이어서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성경에 몰두했다고 한다. 우리 순례팀은 사본이 제일 많이 발견됐다는 제 4동굴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내려오는 길에 기념품 상점에 들려 피부 미용에 좋다는 머드팩, 소금, 비누 등을 면세로 구입했다.

사해(The Dead Sea)

사막 한 가운데 위치한 사해는 해발 -418로 지구 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란다.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라 부르는데, 염분 함도량이 10배 정도 높아 누우면 둥둥 뜰 수 있다. 순도 높은 미네랄이 풍부한 사해 소금은 피부 미용에 좋아 인기 상품이라고 한다. 또한 이곳이 다른 곳 보다 산소가 30% 높아 전 세계 휴양지로 손꼽힌다고 한다. 염분량이 많아 이곳에서 병을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순례자 한분이 오랫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했는데 이 곳에서 치유됐다고 한다. 사해에 들어가기 전 가이드가 경고를 준다. 염분량이 많은 물이기에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바다 밑은 군데군데 바위가 있어 상처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한다. 머드 팩 한 뒤 흐르는 물에 샤워하고 그날은 비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순례팀은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머드 팩을 하고 또 바르고 떡칠을 하면서 웃고 또 웃었다. 역시 예뻐지고 싶은 여자의 본능은 속일 수 없나보다. 말로만 듣던 머드 팩을 했는데, 진짜로 피부 축감이 너무도 부드럽다. 비키니에 머드 팩하고 사해바다에 누워 즐기다.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 성당 (Church of the Nativity)

그리스도인 이라면 모두가 한번 가 보고 싶은 성지 인데, 3개의 문으로 되어 있다. 지하 동굴로들어가 제대가 만들어진 곳 에서 미사를 드렸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 드리는 미사 형식으로, 집전하시는 신부님 뒷 모습을 보며 미사를 드렸다. 아주 인상 깊었다.  순례 후 성 케틀린 교회를  들어가 보았다. 이 장소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미사드리는 장면을 생중계로 전 세계로 보낸다고 한다. 다음 장소는 헬라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최초 번역한 곳 “성 제롬 교회 “ 를 들렸다. 지금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위대하신 분. 오늘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 입성 하여 “노틀담 호텔” 에서 투숙, 석식 및 휴식

**11월 19일(월) Day 8  무덤교회**

 ‘십자가의 길’ 을 하기 위해 새벽 5시에 기상 집결하여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한 곳 으로 이동헸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 했을까 생각해 본다.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길 양옆으로는 수 많은 상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무척 집중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만 같다. 길 바닥은 돌이 달아 반들 거린다.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다녀 갔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십자가의 길 10처부터 14처 까지는  “무덤교회”이다. 무덤교회로 들어서서  제12처 제단 아래 가운데 움푹 파여진 곳이 있는데, 십자가가 서 있던 장소라고 한다.  우리 순례단은 한명씩 그 곳에서 잠시 묵상하고  입맟춤 했다. 우리는 경당으로 옮겨가서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후 호텔로 이동해서 조식 후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남기신 올리브산 지역으로 옮겨갔다.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 성당

성당 앞 마당에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는 아버지 즈가리아가 부른 즈가리아의 노래가 여러나라 말로 벽에 붙여 있다. 한글로 된 즈가리아의 노래도 있었다. 지하 경당 제대 앞에는 별 자리 모습 예수 탄생 동굴과 비슷한 모양으로 꾸며저 있다.

예수승천교회(돔)와  주 기도문 교회 방문

프랑스의 어느 공주가 기증했다고 하는 주 기도문 교회는  170여개국의 언어로 주 기도문이 벽에 전시 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된 주 기도문을 찾아 잠깐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주로 기도하시던 동굴을 찾아가 주 기도문 노래도 불렀다. 주 기도문 성당에서 오른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수 많은 무덤과 납골땅이 보이는데 이곳에 선지자 말라기도 묻혀있다고 한다.  이 길은  종려주일에 주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입성하신 골목이라고 한다.

눈물교회

눈물 모양의  형상으로 만든 교회로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에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 이라고 한다. 제대에서 스테인드 글래스 창문 앞 정면으로 보면  맞은 편에 주님 무덤교회가 보인다.  세속화, 인간화 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애통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곳 이라고 하여 눈물교회라고 이름 지었단다. 입구에서 가시나무도 보았는데  생각보다  가시 싸이즈가 너무 커서 놀랐다. 고통의 신비 3단을 잠시 묵상해 보았다. 여기서 우리 순례단 단체사진 찰칵

겟세마니(올리브 기름을 뒤틀어 짜는 틀) 대성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 마지막으로 고뇌의 기도를 드리신 곳이며,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곳 이다.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기도 중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라면 제게서 이잔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셨을까  잠시 묵상해 보았다. 교회 안에 들러, 온 가족을 위한 촛불 봉헌을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교회 옆 건물 에는 예수님께서기도하신 작은기념 바위가 놓여 있었다.

성모님 영면 성당

이 곳에서 성모님이 잠드셨다고 해서 기념하는 성당이라고 한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니 큰 교회 종탑이 보이는데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성당 내부는 모자이크로 성모님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성당 밖에는 두 여인이 마주보고 기뻐하는 장면을 담은 조각상이 보였다. 마리아와 사촌언니 엘리자베스가 만나 기뻐하는 모습이다.

최후의 만찬 기념 장소

2층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고, 아랫쪽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경당이 있는데, 사진 기둥 중간 쯤에 펠리칸이 조각되어 있다.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르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새 펠리칸(Pelican) ‘최후의 만찬 기념 경당’ 안에서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펠리칸을 볼 수 있었다. 아랫층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고, 윗층으로는 성령강림 경당이 자리잡고있다.

통곡의 벽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 이라는 전승도있다. 여러차례 파괴, 재건되어 현재 있는 통곡의 벽은 제 2성전의 서쪽 벽이다. 뿌리를 잃은 유대인들이 그나마 남은 서쪽 벽에 모여 통곡하며 기도하였기에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 곳을 찾아 기도 한다. 건너편에는 이슬람이 관장하는 커다란 황금 사원 돔이 보인다.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혜아려 보니 통곡하는 이유가 쉽게 설명된다.

성 안나 성당

사자문 안 쪽으로 위치한 곳, 성모님 어머니가 탄생하여 기념한 성당이며 지하동굴로 내려가면동정 마리아가 태어난 곳을  기념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성당 내부에는 천정이 높고 공명이 잘 되어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린다. 이 곳에서 우리 순례 팀은 3,4곡 정도 성모님 찬가를 함께 불렀다.

벳자타 연못(자비의 집)

병자를 고치신 기록이 남아 있는 연못으로 성 안나 성당 건물 끝은 계단으로 이어져서 연못과 연결되었다. 고대에 키드론 계곡에서 흘러온 빗물을 모아 성전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  연못 주변에 의학적, 종교적 치료를 목적으로 건물들이 세워졌다. 욕실과 병실을 지어 대중들을 위한 치료소로 사용했다고 한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38년된 중풍 환자를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한다.

**11/20(화) Day  9 갈멜산(포도원) 엘리아기념교회**

7 시 기상, 호텔에서 조식 후 갈멜산 기도원으로 이동했다. 곳곳에 기도와 예배의 흔적이 보인다.  불에 탄 듯한 돌탑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기념교회를 들렸다. 여기는  “옥상”이 하이라이트인데, 옥상에 올라가 보니 이즈라엘 계곡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엘리야가 이방의 신을 한칼로 쳐  물리치신 곳이란다.  멀리 끝자락으로 지중해가 보인다. 이곳에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하느님께서 해소해 주신 곳. 엘리야의 능력이 가득한  곳. 칼을 휘두르고 있는 엘리야 상이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다.

나자렛 수태고지 교회

대성당 입구에는 전 세계 국가 전통의상을 입은 마리아 성화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평화의 모후여 하례하나이다’ 한국의 성모님도 찾을 수 있었다.  ‘마리아의 문’에는 마리아와 관련된 생의 이야기가  청동으로 새겨져 있었다. 성전 안 지하실에는 ‘마리아의 집터’  가브리엘 천사에게 잉태 소식을 들은 곳 이다.  이 비쟌틴 교회의 건축 양식의  하이라이트는 천장인데, 백합화를 뒤집어 놓은 듯한  아주 특이하고 신비한 모양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정오 12시였다. 수사님들은 삼종기도를 마쳤다.  우리 순례팀도 여기에서  김 신부님과 우리 말로 삼종기도를  바쳤다. 이곳에서 가족을 위한 촛불 봉헌을 드렸다.

성 가정 성당

성 가정 성당과 성모 영보 대성당은 건물만 다를 뿐 같은 마당에 위치하였다.마리아, 요셉이 예수의 성가정이 살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마리아가 살았는데, 나중에 결혼하여 요셉의 집에서 성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던 곳 이다. 지하 경당 창문은 성 요셉의 일생을 그린 스테인드 글래스로 꾸며져있고, 계단 마지막 지하에는 목수인 요셉의 동굴 작업장이 보존되어 있다. 성당 바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 이라고 전하자 놀라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 있다. 마당 한 곳에는 성스럽고 우아한 마리아 상이 있다.그 앞에서 우리들은 개인별로 사진을 찍었다. 김 신부님 찍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

가나 혼인잔치 기념성당- 순례팀 6커플 혼인갱신 서약을 하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 이다. 혼인잔치 집에 초대 받아 갔는데 잔치 중에 술이 떨어져 성모 마리아의 요청으로 항아리에 든 물을 술로 만든 기적을 보인 곳 이다. 이제까지 순례한 곳 중  많은 순례객들을 볼 수 있었던 곳 중하나다. 우리 순례팀 전팀의  일정이 늦어져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포도송이로 예쁘게 장식된 제대 받침이 눈길을 끌었다. 미사 중에  순례팀  6커플이  혼인갱신을 서약하였는데, 그 중 우리 부부도 포함됐다.  이런 특별한 곳 에서 혼인갱신 서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감개무량 하다. 팀원 한명이 혼인갱신한 커플들을 축하해 준다고 가나의 기념품 상점에서 포도주 한병을 샀다. 갈릴래아 티베리아스로 이동해서 호텔 투숙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Camp Fire 이벤트

요한 사장님의 특별 이벤트로 호숫가에서 켐프파이어를 했다. 장작 불 태우며 낮에 준비한 포도주와 위스키 그리고 달빛을 벗 삼아  안주를 먹으며, 혼인갱신 팀들과 축배하고 노래를 불렀다.  가사를 잊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별로 없는 관계로 소시적에 부른 학교종이로 시작해서 송아지도 부르고 섬 마을 선생님도 부르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냈다.

**11/21 (수) Day 10 예수님의 배 유람선에 승선하여 일출을 감상하다.**

6시 기상, 갈릴래아 호숫가로 이동하여  예수님 배 유람선에 승선하여 갈릴래아 호수를 횡단 하면서 일출을 감상했다.  선장이  배 중간에 있는 기둥 위로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올리면서 국기 게양식을 했다. 호숫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넓고 크다. 아름답고 신비롭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여 주셨던 곳 이며,  물 위를 걸으신 곳이다. 나는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워 하며 순례하고 있다.

가파르나움- 성 베드로 기념 성당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신 대부분의 장소로 이 곳이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 였으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부 출신의 첫 제자들인 베드로,안드레아와 야고보, 요한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시켜 주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 소생, 망령들린 자의 더러운 영을 쫓아 내시고, 중풍 병자를 치유하시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마을 ‘가파르나움’ 이라는 팻말이 달린 문 안쪽으로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이고 한쪽에는 눈에 띄는 동상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한손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힘찬 조각상이 보인다. 순례팀은 기념 사진을 남겼다.  안으로 들어가면 베드로 집터위에 배 모양으로 지은 ‘성 베드로 기념성당’ 이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뜻있는 미사를 봉헌하였다.

진복팔단교회(Church of Mt. Beatitudes)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던 곳이다. 갈릴래아 호수로 가다 보면  ‘쇄이크 알리’ 라고 불리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산상수훈 성당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여덟까지 참된행복을  기념하여세운 돔으로 팔각형 지붕으로 된 성당이다. 교회 지형상 이곳은 위쪽을 향해 크게 이야기하면 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잘 전해진다고 한다. 성당 내부의 벽면에는 여덟까지 행복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 곳에서 김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순례단에게 진복팔단을 낭독하셨다.

베드로수위권 교회(Church of the Primacy of Peter)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한 뒤 부활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의 고백을 듣고 지상 사명을 맡겼다고 전해지는 장소에 세워졌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 베드로가 잡은 고기와 빵으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했다는 장소를 기념한 교회다. 검은 바위 벽돌로 지어진 성당 건물 내부에는 ‘그리스도 식탁’ 으로 불리며 예수가 제자들과 식사한 바위로 여겨지는 큰 바위가  보존되어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 성당(Church of the Multiplication)

붉은 벽돌지붕의 에스파냐 양식의 건물로 예수께서  물고기 두마리와 빵 다섯개 축복을 5000명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빵 7개를 4000명에게 먹였다는 기적의 장소를  기념하여 세운 곳이다. 내부에는 물고기와 빵을 그린 5세기의 모자이크가 남아 있다.

벳산 국경을 통과 암만 도착 석식및 호텔 투숙.

**11월22일(목) Day 11**

호텔 조식 후

암몬성

로마 비잔틴 시대에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로마시대의 유적이 많으며 헤라클라스 신전이 있다.  헤라클라스의 손과 팔꿈치를 만든 조형물이 보였다. 조그만 박물관에 들러 유물들도  보았다. 이곳은 다윗왕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얻기 위해 암몬의 랍바를 공격할 때 우리아 장군을 앞세워 공격하게 했고, 그 전투에서 우리아 장군이 전사했다는 장소이기도 하다.

느보 산 -  Mt. Nebo 모세 기념 성당

모세의 발자취를 남긴 곳이며 생을 마감한 곳 이다. 교황님 방문 기념비가 교회 밖에 있고, 커다란 무덤 같은 바위가 서 있다. 십자가 형상의 구리 뱀에 세워져 있는데, 이 곳에서 내려다 보면 모세가 그리워 하던 가나안 땅이 보인다. 이 교회는 9년간에 걸쳐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 전에 완성됐다고  한다. 교회 내부에는 조그만 박물관에 다양한 기록물과 지도가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 곳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드리는 동안 천둥, 비가 폭탄처럼 천정을 두들겼는데, 미사 후 밖에 나오니  말끔히 개였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마다바- 성 조지 성당

그리스도 정교회인 성 죠지 성당 교회 바닥에는 성지에 나와 있는 모든 곳을 모자이크로 만들어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가 있다. 성당 옆 조그만 기념품 가게는 모자이크 기술을 알려주는 학교라고 한다.  다양한 종류의 모자이크 작품을 볼 수 있었는데, 생명의 나무 작품이인상적이었다.

마케루스 요새 – 세례자 요한 참수터

사해 동쪽 산 언덕 꼭대기에 만들어진 천연 요새로 세례자 요한이 투옥되고 참수된 순교 성지이다.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가 세례자 요한을 죽일 기회를 노리다가 헤로데의 생일 날 춤을 춰 기쁨을 선사한 딸의 도움을 받아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였다고 전한다. 여기서 나는 가이드가 질문한 퀴즈’ 마케루스’를 답하여 가이드로 부터 선물을 증정 받았다.

아르논 골짜기

요르단의 그랜드 케년이라 부르는 아르논 골짜기에 잠깐 휴식했는데, 마침 해가 지는 시각이었다. 골짜기의 붉은색과 노란색 사암에 반사되어  정열적으로 비친 빨강 색채와 깎아지듯 가파른 절벽이 환상적이었다. 나는 여기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소라가 새겨진 밝은색  화강암 하나를 기념품으로 준비했다.

모세의 우물

모세가 이집트의 시나이산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 북상하다 이곳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화를내며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치자 물이 솟아났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페트라 호텔 숙박

**11월 23일(금) Day 12**

페트라

호텔 조식 후 유네스코 지정 7대 불가사의의  한 곳인 페트라를 방문했다.

페트라의 뜻은 바위를 말한다. 암벽에 세워진 도시다. 페트라는 요르단에 있는 수도인 암만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산악 도시다. 오전에 햇볕이 들때면 온통 바위가장미빛 처럼 붉고 아름답게 물든다 하여 ‘장미빛 붉은도시’라고 말한다.

페트라 입구에 ‘와디무사 ‘ 모세의 계곡이라 불리고,여기서  1.5에서2km 시크(협곡) 을 따라걷다보면,  군데군데 태양신 나바타인 신전을 볼 수 있다. 바위 절벽에는 자연이나 인위적으로 만든 형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눈에 띄는 작품들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달콤한 입맞춤, 코끼리형상 같지만 옆으로보면옥돔(생선) 형상, 낙타와 상인작품으로 예전에 무역 중심지임을 알려주고 있다.

약2km 의 좁은 협곡 시크의 길이 끝나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엘카즈네 신전이 보인다.이곳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 장소이기도 하다.놀랍고도 신비로울 정도로 정교한 건축양식, 고대 유적물이다. 맨 윗부분에 항아리에 보물이 숨겨 놓았다는 전설이 있지만,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페트라 안쪽으로는 왕의 무덤과 수 많은 이름 모를  바위로 된 가족 무덤들이 있고,  나바타인이 오리지널하게 세운 원형극장을 로마시대에  확장해서 약 8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돌로 만든 극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배두인 유목민

페트라 유적 투어 후 암만으로 향하던 도중, 말로만 듣던  양떼를 모는 베두인 유목민을 보았다. 신기할 정도로 많은 양떼를 몰고 간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목자와 양떼’ 를 생각해 본다. 유목민들은 손님 접대에 아주 관대하다고 한다. 점심은 유목민들의 음식인 기름을 빼낸 무자르프양고기를 먹었다. 순례 후 암만으로 이동해서  저녁을 먹었다. 아주 유명한 ‘양고기 집’ 이라고 한다. 먹고 또 먹었는데 많이 남겼다. 평생 먹은 양고기보다 이번 순례동안 먹은 양고기가 더  많은 것 같다.

**11월 24일(토) Day 13**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후 4시 반 필라 공항 도착, 그리웠던 내집,  평화롭고 아늑한 내집, 오~사랑하는 나의 집 으로 돌아왔다.

끝